

# 계묘년 (癸卯年) 신년사

##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길”



홍천실버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군민과 홍천실버뉴스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이웃의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홍천실버뉴스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8기 홍천군정을 시작하면서 「군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홍천」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의 소통과 정책 수립에 힘써 왔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 군정이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해로 지역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교육과 여가의 시간을 더 알차게 꾸미고,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인 경로당을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성장해 온 홍천실버뉴스가 어르신들을 대변하는 언론이자, 군정과 군민의 삶을 살찌우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홍천실버뉴스 가족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고 행복이 깃들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천군수 신영재 올림

## “어르신들의 행복을 전달하는 알찬 정보지로서 자리매김하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복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묘년(癸卯年)은 검은 토끼의 해로 한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는 토끼만큼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홍천군의 번창과 풍요를 가져오는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제9대 홍천군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금리, 곡물, 에너지 등의 물가폭등으로 경제가 흔들렸고, 국내적으로는 전 국민이 애도한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재난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군민이 느꼈던 지난해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군민들의 슬기와 지혜가 모여 역경을 이겨냈듯 앞으로 남은 어려움도 거뜰히 이겨 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출범한 저희 9대 의회도 어느덧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가 “주민을 생각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면서,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챙기고 홍천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생활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홍천실버신문 창간 1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홍천실버신문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을 담은 소식지로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전달하는 알찬 정보지로서 자리매김 해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높은 질의 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22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희망찬 홍천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듯이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복 올림

# 계묘년 (癸卯年) 신년사

“어르신들의 소중한 지혜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홍천실버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묘년을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뛴다는 의미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더 멀리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통해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이 교체되었고,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사회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홍천군민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며 2025년이면 전체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역할이 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홍천실버신문의 역할 또한 막중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는 주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통해 얻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지혜를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홍천실버신문이 소통의 가교역할을 앞으로도 훌륭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창간 9주년을 맞이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천실버신문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홍천군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한해 한해 거듭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올 한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길 희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나라가 더 평안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홍천군민 그리고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검은 토끼띠의 해, 계묘(癸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순하고 친근하며 영민(英敏)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토끼는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치 앞을 미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면은 오늘을 살아갈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지혜가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홍천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초 기준으로 약 29%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를 지나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인구학적 측면을 비롯하여 다변화적인 환경 속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은 어느 누구보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2022년, 지난 한해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여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어르신의 삶을 크게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노년사회화교육,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에 힘써서 지역 내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복지관에 찾아와 예전의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토끼와 같은 영민함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역 내 어르신들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홍천군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및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지관으로써 정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묘년 (癸卯年) 신년사

##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코로나 19’와의 길고 지루한 싸움 중에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2023년을 맞습니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께 웃음 가득하고 건강과 행복 또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거쳐 4차 혁명의 인공 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다원화와 다양화가 어르신들의 삶에 질곡을 그렸지만 어르신들의 삶은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자식만은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열을 불태우셨고 이국땅 중동에서 건설일꾼으로 독일에서 간호사와 광부로 땀과 눈물을 흘리셨으며 베트남에서는 피를 흘려 보릿고개를 이겨낸 힘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OECD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우뚝 세우셨습니다.

자식이, 사회가, 국가가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 어르신들의 고마움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어르신들은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셔야 합니다.

2023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일궈낸 대한민국에서 풍요와 즐거운 시간을 충분히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빌려온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들어내신 결과물입니다.

방역수칙 준수로 어르신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한 ‘코로나 19’ 변종이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겠지만 결국 인간의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새로운 2023년에는 종식되고 마침내 일상으로의 복귀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저의 의정활동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이영욱 올림

##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현운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촌면·두촌면·내촌면·서석면·영귀미면·남면·서면·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원도의회 도의원 홍성기입니다

계묘(癸卯)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부부애 등 사랑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복지관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 및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천노인복지관은 2011년 위탁을 받아 출범한 뒤, 벌써 11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노후!’라는 복지관의 비전처럼 그간 10여 년간 실버신문·내 인생 최고의 오늘·홍천시니어예술단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 상담, 노년사회화 교육을 선도했으며, 그 외 건강관리 및 실버자원봉사단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권의 증진 등 홍천군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후 활동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도 홍천군을 대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홍천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예산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은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년과 늘 함께하겠다는 복지관 소개 인사말처럼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복지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이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복지관입니다. 올 한해도 어르신의 꿈과 소망한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운재 관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복지관의 사명과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저를 비롯한 홍천군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홍성기 올림

# 계묘년 (癸卯年) 신년사

## “흑호의 기운을 품고 분주히 성장하는 흑토끼처럼 올 한해에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흑호(黑虎)의 용맹한 기운으로 월드컵 16강의 신화를 다시 이룬 2022년의 뜨거웠던 임인년(壬寅年) 해가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홍천군 65세 이상의 어르신 약 20,000여명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며 새해의 인사말을 올립니다.

2011년 5월 289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작한 우리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홍천의 유일한 노인복지관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2023년 현재 3,5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일상회복을 잠시 머뭇거리게 만드는 지난 한 해였지만 2022년 5월 개관 후 활기차고 즐거웠던 예전의 복지관 모습을 어르신들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등 접근성이 결여된 원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평생교육, 시니어예술단, 밑반찬배달서비스, 노인·장애인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류 및 연탄지원,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등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지난 12년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는 지금, 흑호의 기운을 품고 분주한 흑토끼처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발맞추어 상황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꾸준히 발로 뛰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지역 어르신들과 여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한 해에도 귀하와 그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쪼록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소원하며 그 길에 우리 복지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임직원 일동

### 새해칼럼



석도익  
소설가

새 달력이 두 달 전부터 찾아와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 걸렸다.

올해가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하는 서기 2023년이고, 우리민족이 조선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세운 때는 서기보다 2333년이 앞 서기 때문에 단기4356년이다.

옛날에는 수탁이 꼬끼오~ 하고 울어야 날이 밝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가로등이 눈을 감아야 여명이 기지개를 켜며 아침이 오는가 보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기대하는 것도 크고 바라는 것도 많겠지만, 예

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만 주문하면 새해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응애~애기우는 소리에 날이 밝았으면 좋겠고, 마을마다 애기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더욱 좋겠다.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려하는 젊은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일구어온 삶을 이어 사람 구실하여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흑과 백의 논리로 싸움만 하고 있는데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민주주의를 더 익혔으면 좋겠다.

거지가 없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거지가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 뉴스가 되고, 이를 믿고 우왕좌왕하는 한심한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자는 여자같이 곱고 어른은 어른같이 지혜롭고, 어르신은 어르신같이 덕이 있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이기적으로 이탈하는 현실에서 우리를 찾고, 함께하는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지역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폈으면 좋겠다.

노인으로 모셔두고 일할 사람 없다. 하지 말고, 어르신들의 연륜으로 쌓인 능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삶의 문화를 풍요롭게 창출하고 있는 홍천노인복지관이 지향하는 길이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이 모는 것이 홍천에서 홍천에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며 만들어지고 이어져 생활문화 창달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넓은 내에 띄워 놓고 새해에 닿을 올린다.

## 새해에 바람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때문에 발같이 하는 소에게 풀 뜯어 먹지 못하게 입 막는 명(마스크)을 사람이 쓰고 생활한지 오래되어 일상패션이 되어버린 입마개를 벗게 되어 사람들의 민얼굴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민주주의의 길로 접어들어 질주하다보니 중앙선을 넘을 때가 많았다. 민주주의란

국민을 방패로 국민을 앞세워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이나 정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선진국인줄 모르고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정치인이나 국민은 선진국 국민임을 깨우쳤으면 좋겠다.

아이는 아이같이 자라고, 학생은 학생같이 공부하고, 청년은 청년같이 용감하고 남자는 남자같이 늠름